

도시공간에서 교육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교육 기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patial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in an
Urban Area: Focusing on the Opportunity to Learn English by School
Native English Instructors

이동민**

1990년대 이래 학교 현장에 배치되어 온 원어민 보조교사는 영어교육의 효과 및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도시 공간에서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져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를 사례로 하여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을 Natural Break 기법과 군집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도시 내부에서의 원어민 보조교사에 의한 영어교육의 기회는 공간적으로 불평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 내 자치구별 재정상태 및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을 위한 예산 마련과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었다. 이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높은 수준·만족도의 영어교육을 받을 기회에 공간적 불평등을 야기하여, 영어교육은 물론 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자치단체의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심화 또는 완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에 의한 영어교육 기회의 도시공간적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자원 확보·분배 문제의 개선 등의 노력

* 본 연구가 진행되는데 있어 귀중한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던 박배균 교수님과 황진태 동학,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김다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ldmin1988@snu.ac.kr)

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주요어: 교육 기회의 평등, 교육 기회, 원어민 보조교사, 도시공간

1.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교육 기회의 평등은 교육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평등은 사회정의 및 그것의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equity)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의(justice)가 존립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Deutch, 1975). 평등의 의미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육 기회의 평등, 교육 결과의 평등 등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교육 기회와 관련된 문제는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교육받을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진다면 차후에 일어나는 교육활동에서의 평등에 관련된 논의는 일정 부분 무의미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 기회의 확보 여부는 교육적 평등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출발 조건에 있어서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과의 평등은 더욱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기회의 분배 및 그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는 교육적·사회적 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교육의 평등 또는 불평등을 나타내는 척도로 작용하기도 한다(손준중, 1995; Coleman, 1990; Talen, 2001; Zhang and Ravi, 2005).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학생들이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교육과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는 물론, 지역 사회 내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Coleman, 1990). 이러한 점에서 도시 공

간에서의 교육 기회의 평등 문제는 교육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늘날 도시는 지역 구분의 기준이 되는 주된 행정단위일 뿐만 아니라, 활발한 경제활동, 산업화, 서비스업의 발달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인·박수진 편, 2006). 이러한 도시공간은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면서도 상이한 생활패턴 및 고용패턴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집중된 특성을 가지며, 높은 수준의 전문화된 토지 이용 및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구들의 조직적인 시설·자원 이용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공간이기도 하다(Heartshorn *et al.*, 1992). 따라서 도시에서의 교육 기회 평등 문제는 교육적 관점에서는 물론, 도시공간의 관점에서도 연구될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영어교육 강화의 목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공간적 분포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의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영어교육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의 단계적 확대 배치를 정책화하였다(하운봉, 2007; 최희경, 2008). 하지만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현황을 전국적인 스케일에서 살펴보면 지역 간 격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홍창남 등, 2009).¹⁾ 이 같은 격차는 도시스케일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즉, 도시공간의 내부에서도 원어민 보조교사에 의한 교육 기회와 관련된 공간적 차별성이 존재할 수 있는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은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구성 부문인 만큼,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우중현, 2002).²⁾

1) 홍창남 등(2009)에 따르면, 2009년 현재 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의 경우 제주도 내 학교들은 100% 확보하고 있는 반면, 울산광역시 경우에는 8.3%의 학교들만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등 시도지역 간에 원어민 보조교사 분포의 지역 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교육활동 및 교육시설을 입지적·지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문분야를 교육지리학이라고 하며, 이는 사회지리학의 한 분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 과제를

이러한 점에서,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의 불균등한 지역적 분포는 지역 내에서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지역 차를 유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주경식·김경숙, 2004). 이러한 관점에 토대하여, 공립학교나 사설 학원 분포의 지역 차를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송유선, 이은숙, 1993; 우종현, 2002; 주경식, 김경숙, 2004). 여기서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교육시설 그 자체의 존재·분포에 관한 문제는 물론 그것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역시 중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의 공간적 분포 문제는 도시공간에서의 교육 기회 평등 문제라는 측면에서 연구될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공간적 분포가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원어민을 통한 영어교육 기회에 지역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열풍’으로 묘사될 정도로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다(송승민, 2005) 영어실력이 능력과 성공을 보장하는 문화자본으로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다(최재철, 2003)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다른 분야의 교과교육과 관련된 기회의 불평등에 비해서도 특히 연구될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 내에서의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을 공간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갖는 특징 및 관련 요인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갖는 공간적 특징이 도시공간에서의 교육평등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살펴보면 학교의 입지와 규모, 통학문제, 학구 설정과 같은 행정적 과제와 아동 및 학생들의 행위, 학업 성취 및 진학률의 차이, 교육 기회의 차이와 같은 교육환경적·사회적 과제로 구분하기도 한다(우종현, 2002에서 재인용).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 25개 자치구별 국·공립 및 사립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등 보통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외국어 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는 설립목적 자체가 외국어교육의 수월성 향상인 만큼, 일반 인문계·실업계학교 및 다른 특목고(과학고 등)에 비해 외국어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인적자원에 대한 월등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태생적인 차별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자치구별로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출(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을 파악하였다. 이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6학년에서만 영어교육이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전체 재학생이 아닌 3~6학년 재학생만을 집계하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 학년에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는 만큼 1~3학년 재학생 수를 모두 집계하였다. 학교별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2010년 4월 현재)은 교육정보 공시서비스(<http://www.schoolinfo.go.kr>)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자치구에 소재한 학교 급별로 전체 학생 대비 원어민 보조교사 수의 비율을 원어민 1인당 학생 수로 산출하였다. 원어민 1인당 학생 수가 낮을수록 학습자가 원어민 보조교사에게 보다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고려, 이를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획득·산출한 자치구별 자료를 Natural Breaks 기법을 활용하여 지도화·등급화하였다. 등급화한 자료는 학교 급별로 확보된 자료인 만큼,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공간적 접근성이라는 연구주제에 보다 타당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급별 등급을 점수화(1~5점)하여 합산한 다음 위계적 군집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을 군집화하였다.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의 공간적 분포 패턴이 나타나게 된 요인 및 공간적,

사회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채용 및 예산 배분에 관한 해당 행정기관 내부 자료(2010년 기준)를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기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별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요인에 관한 자료들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였다.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의 분포 현황이 어떤 특징을 가지며 그러한 특징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도시공간에서의 교육평등이라는 문제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공간적 접근성의 문제와 교육 기회 평등

1) 도시 공간에서의 교육 기회 평등

교육 기회의 평등이란 문자 그대로 교육받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짐을 의미한다. 교육의 평등은 일반적으로 교육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자원이 평등하게 또는 공정하게 배분되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주제이다(Coleman, 1990; Lynch and Baker, 2005, 재인용; Talen, 2001). 이러한 점에서, 교육 기회의 평등 문제는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시설 및 여기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평등하게 주어지는가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이는 공간적 측면에서도 접근될 필요가 있다. 공간이란 사회의 구체적인 양상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용기로 작용하며, 또한 공간 내부에서는 거리로 인한 격리가 발생하여 개체화 및 차별화가 유발되기도 한다(水岡不二雄, 2002). 이 같은 논의는 교육평등의 문제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 즉,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등 교육 기회는 실제적으로 공간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평등의 문제는 공간이라는 요인에 입각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을 도시라는 공간에 적용해 보면, 교육 관련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도시의 공간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평등하게, 또는 차별적으로 주어져 있는가의 문제는 도시 공간에서의 교육 기회 평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Zhang and Kanbur(2005)은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이후 중국에서 도-농간 문맹률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격차가 증가해 왔으며, 이는 재정 분권화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교육 기회의 지역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설명하였다. Talen and Anselin(1998)은 도시 내부에서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접근성은 공간적 패턴을 이루며 차별화된다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놀이터는 복지의 기능뿐만 아니라 특히 연령대가 낮은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 및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도시공간 내부에서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불평등한 패턴을 이룬다는 사실을 제시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Talen(2001)은 도시 근교 지역의 초등학교 접근성을 분석한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교에 대한 접근성은 도시화율, 지가, 자가 비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차별화되며, 이는 학업 성취도와도 관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교육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이 결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국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고등학교 분포 특성을 고찰하여 공간 불균등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정책적 대안을 도출한 우중현(2002)의 연구나, 사설 교육시설인 학원의 서울시내 공간적 분포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지역 내에서 학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 주경식, 김경숙(2004)의 연구 등은 이 같은 관점에서 도시공간에서의 교육 기회 평등 문제에 대해 접근한 선행연구에 해당한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 같은 교육시설 분포의 지역 차가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차별화하여 교육환경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학교, 학원 등의 교육시설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시설 자체의 입지는 물론 교사의 수준 및 구성³⁾이라든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공간적 분포와 같은 문제 역시 도시 공간에서의 교육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 시설 및 교육 과정, 교사의 특성 등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요소는 학습성취도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교육 평등 문제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며 (Coleman, 1990), 이러한 점에서 이들 요소의 공간적 분포나 차별성 여부는, 도시 공간에서의 교육 기회 평등 또는 불평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자리매김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교육시설 및 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또는 이용 가능성은 교육평등 문제와 관련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이것이 도시공간 내부에서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 도시공간의 교육불평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2)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공간적 접근성과 교육 기회의 평등 간의 관련성

이러한 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의 공간적 분포가 도시공간에서의 영어교육과 관련된 교육 평등의 문제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제도는 초·중·고교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하봉운, 2007). 더욱이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와의 영어수업이 흥미도, 자신감, 동기 등 정의적인 측면과 원어민 교사의 발화에 대한 이해력 증가, 영어실력 향상, 영어권 나라의 문화 이해 등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긍

3) 예컨대 Coleman(1990)은 학생들은 물론 교사의 교육 수준, 인종 구성 등의 문제 역시 교육 기회의 평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원어민 보조교사와 함께하는 영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경북일보》, 2009.4.8; 《대전일보》, 2009.1.21; 최희경, 2008). 이로 인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0년대 중반 이후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의 단계적 확대 배치가 정책화되었으며,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확대를 위한 교육청 단위의 노력(《뉴시스》, 2011.2.8)이라든가 원어민 보조교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학교 교육의 수준 향상(《내일신문》, 2011.12.1; 《매일경제》, 2011.12.1)과 같은 시도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어민 보조교사는 영어교육의 성취도, 만족도 등 질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적 자원이며, 교육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앞서 언급한 교사 관련 요인과 특히 높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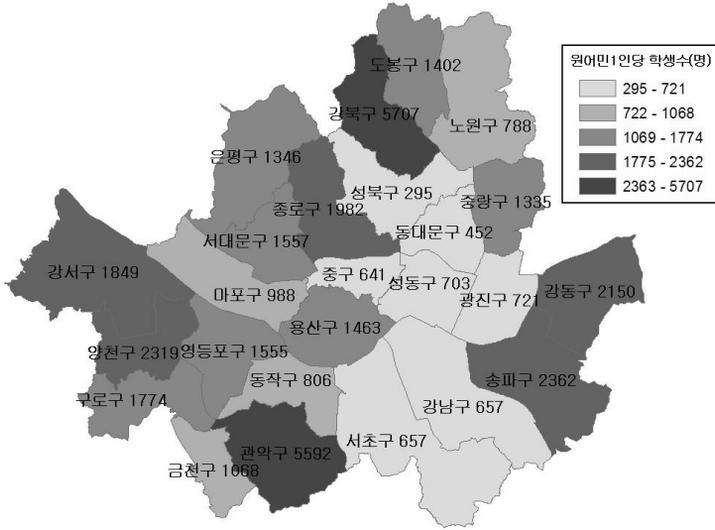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도시공간 내의 원어민 보조교사 분포에 대한 접근성이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영어교육과 관련된 교육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분포 정도가 낮은 지역은 높은 지역에 비해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수준 높은 영어교육 기회에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어교육 기회에 공간적 불평등이 야기된다면, 특정 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외국어 친화적 환경에 접근하거나 보다 만족도 높은 영어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받게 되어 영어 교과에서의 성취도, 즉 영어교육 결과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서울특별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의 공간적 불평등성

1) 서울특별시 원어민 보조교사의 공간적 접근성 현황

2010년 4월 현재 서울시내 자치구별 초등학교 원어민 1인당 학생 수 현황은 <그림 1>과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원어민 1인당 학생 수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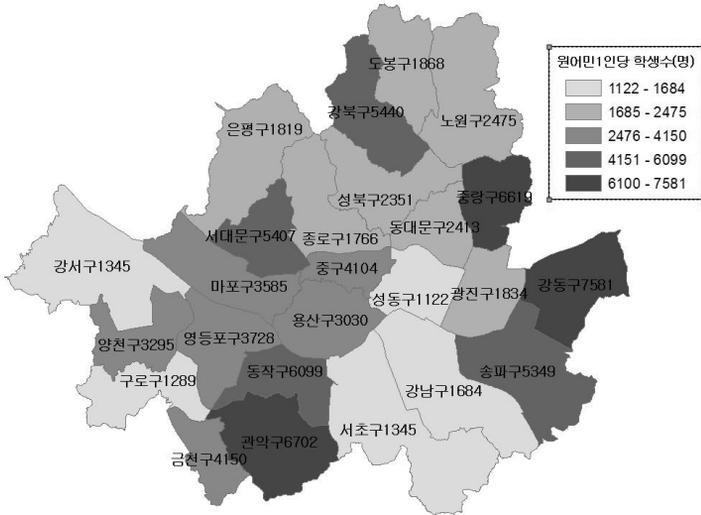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내 자치구별 초등학교 원어민 1인당 학생 수



장 적은 지역은 295명을 기록한 성북구로, 가장 낮은 자치구인 강북구의 5707명과 비교하면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등이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자치구 집단, 즉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군집의 경우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5,000명 이상의 학생이 배당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성북구의 20배에 육박하는 수치로, 이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영어교육 기회와 관련된 심각한 공간적 불평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은 <그림 2>와 같다. 중학교의 경우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성동구(1122명)로, 가장 많은 강동구(7581명)와 비교했을 때 7배 이상의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된 교육 불평등이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에서도 존재한다고 해석될 수 있겠다.

<그림 2> 서울시내 자치구별 중학교 원어민 1인당 학생 수



이른바 ‘강남 8학군’에 속해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 역시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낮은 지역, 즉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지역에 해당한다. 이외의 자치구들은 초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인다. 한편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전체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학교 급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며, 보다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영어교육을 위하여 보완될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은 <그림 3>와 같다. 고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낮은 자치구였던 성동구와 강남구가 여전히 최상위 집단에 속해 있으며, ‘강남8학군’ 소속 자치구인 서초구의 경우에도 여전히 상위 집단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원어민 보조교사 분포에 있어

<표 1>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 분포정도

원어민 보조교사 분포정도	해당 자치구
상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중구
중상	구로구, 동대문구
중	성북구, 은평구, 도봉구, 용산구, 종로구, 광진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노원구, 동작구, 금천구
중하	양천구, 중랑구, 마포구, 강북구, 강서구
하	송파구, 강동구, 관악구

수 있다.

<그림 1>~<그림 3>을 통해 살펴본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된 교육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학교 급별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을 점수화하였다. 학교 급별로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는 5점, 가장 낮은 자치구에는 1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합계(15점 만점)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계적 군집분석에 의해 분석하여, 서울시내에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을 기준으로 25개의 자치구들을 총 5개의 군집으로 군집화하였다. 점수가 가장 높은 군집을 ‘상’, 가장 낮은 군집을 ‘하’로 명명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종합하면 서울시내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은 자치구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수준 높은 영어교육 기회에 공간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사회적·경제적·주거환경적 특성 및 원어민 채용 정책·예산

여기서 확인한 서울시내 자치구별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분포현황이 교육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심층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와 관련된 예산, 정책 및 자치구별 사회, 경제적 여건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접근이 요청된다.

이러한 점에서, 먼저 각 급 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어떠한 과정 및 절차에 의해 채용하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⁴⁾ 서울특별시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대상 학교(사립 포함)로 배치하게 되며, 연중 2월(상반기)과 7~8월(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채용심사가 이루어진다. 채용된 원어민 보조교사는 각 급 학교로 배치되며, 예산에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육청 또는 자치단체로 반환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채용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 예산을 활용하여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액 외에 2010년 현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 기초자치단체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 또한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강남구의 경우에는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이 아닌 자치단체 자체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의 8개 자치구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으며, 자치구단체 자체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실정⁵⁾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채용 예산 현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 4,275,000,000원,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협력사업 예산 10,075,985,070원, 합계

4) 본 연구에서 조사한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배치절차 및 관련 예산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시스템(www.open.go.kr)을 통하여 해당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구청으로부터 획득한 것이며, 일부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한 것임을 밝혀 둔다.

5) 예컨대 광진구의 경우 3개 초등학교에 총 150,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미미한 액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의 예산 또는 지원금은 사실상 연구에 반영할 의미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표 2>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 접근성·예산 현황 및 공간·사회적 특성(2010년 기준)

원어민 접근성	자치구 (재정자립도)	협력사업 예산(원)	교육환경 및 공간·사회적 특성
상	강남구 (77.1%)	4,193,765,650 (강남구청 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른바 '강남8학군'의 중심지: 교육환경 및 각종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매우 양호 -학업성취도나 진학률 등이 우수한 이른바 '명문 학교' 다수 소재: 특히 고등학생 수가 타 자치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음-교육적으로 우수한 여건으로 인해 타 자치구에서의 전입 비율이 높음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음: 서울시내에서 생활환경이 가장 양호한 자치구 -2003년 기준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액 47억 원: 서울시내 최대 규모(진영남, 손재영, 2005) ⇒ 자치구의 우수한 재정상태 및 교육여건을 보여주는 지표
	서초구 (79.8%)	2,787,3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남구와 함께 '강남8학군' 소속: 교육환경 및 각종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양호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음 -강남구와 동일한 이유로 인하여, 고등학생 수가 타 자치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음
	성동구 (5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진 지역: 특히 자녀양육기 세대의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200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짐) -초등학교 과밀
	중구 (82.9%)	977,5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내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최고 -도심 지역: 상주인구가 적고 주거기능이 약하나, 강남 개발 이전에 서울시내에서 이른바 '명문학교'들이 집중되었던 지역으로 오늘날에도 상주인구에 비해 특히 고등학교의 수가 많은 편 -강남구에 이어 서울시내에서 두 번째로 생활환경 양호(서승환, 2005) -2003년 기준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편성액 27억원: 강남구에 이어 2위(진영남·손재영, 2005) ⇒ 자치구의 양호한 재정상태 및 교육여건을 보여주는 지표
중상	구로구 (40.1%)	1,352,8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과밀 -인구·세대밀도 및 자녀양육기 비율이 높음 -노후·불량주택 다수 분포: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중			양호하지 못한 편
	동대문구 (46.2%)	-	-높은 지가, 건물밀도, 주거의 용도 비율 및 노후 주택 비율 -다양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 혼재 -도심 지역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
	성북구 (34.8%)	-	-다양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 혼재 -자치구내 일부 지역의 생활수준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높음: 고급 주택가 소재 -사립초등학교 다수 존재: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총 40개교 중 8개교 소재)
	은평구 (33.8%)	93,000,000	-서울시내에서 생활환경이 열악한 자치구에 해당 -많은 인구나 학교 수, 학생 수에 비해 교육인프라나 투자, 사교육시설 등의 비율이 낮은 편
	도봉구 (35.9%)	372,000,000	-이른바 '강북 3구'로 인식되는 지역: 특히 이른바 '강남' 지역에 비교했을 때 교육서비스 등 공공서비스가 열악한 지역
	노원구 (27.4%)	511,500,000	-대단위 아파트 개발 등으로 인구 및 학생 수가 많은 자치구: 이에 비해 교육인프라는 비교적 최근에야 구축되기 시작함
	광진구 (44.0%)	-	-높은 지가, 건물 밀도 및 주거의 용도 비율 및 높은 노후주택 비율: 자치구내 주거환경은 대체로 열악 -상위 대학 진학률은 강남구, 서초구에 이어 3위를 기록: 이는 자치구내에 소재한 다수의 특목고와 관련성이 높음(윤형호·강민정, 2008) ※실제로 이러한 특목고의 존재가 실제 자치구의 전체적인 교육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향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님
	서대문구 (38.6%)	139,500,000	-높은 지가, 건물 밀도, 주거의 용도 비율 및 노후주택 비율: 자치구 내 주거환경은 대체로 열악한 편
	용신구 (62.7%)	85,200,000	
	영등포구 (66.5%)	-	-도심 지역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 -서울시내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규모가 저조한 자치구에 해당
	종로구 (78.5%)	744,000,000	
	동작구 (45.9%)	88,515,070	-노후주택 비율 높음: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열악함

			-서울시내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규모가 저조한 자치구에 해당
	금천구 (37.8%)	-	-인구·세대밀도 및 자녀양육기 비율이 높음 -노후·불량주택 다수 분포: 전반적인 주거환경 열악 -초등학교 과밀 -서울시내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지출규모 최저 -주민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낮은 편
중하	양천구 (43.6%)	680,000,000	-초등학교 과밀 -대단위 아파트 개발, 도시 재개발 등으로 인구 및 학생 수 증가: 이에 비해 교육인프라는 비교적 최근에야 구축되기 시작함
	중랑구 (30.5%)	350,000,000	-서울시내 자치구 가운데 학생 1인당 교육비 최저수준 -주민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낮은 편
	마포구 (47.1%)	817,000,000	-노후주택 비율 높음: 전반적인 주거환경 열악 ⇒ 최근 들어 재개발사업 등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함 -대단위 아파트 개발, 도시 재개발 등이 이루어진 지역: 이에 비해 교육인프라는 비교적 최근에야 구축되기 시작함
	강북구 (31.7%)	-	-이른바 ‘강북 3구’로 인식되는 지역: 특히 이른바 ‘강남’ 지역에 비교했을 때 교육서비스 등 공공서비스가 열악한 지역 -서울시내에서 가장 생활환경이 열악한 자치구 (서승환, 200): 금천구와 더불어 2003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최하위에 해당(진영남·손재영, 2005)
	강서구 (33.8%)	519,600,000	-서울시내에서 생활환경이 열악한 자치구에 해당
하	송파구 (73.9%)	372,000,000	-강남구, 서초구와 함께 이른바 ‘강남3구’의 하나: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자치구의 경제력이나 개발 정도가 높음 -사교육시설 다수 소재 -초등학교 과밀
	강동구 (44.5%)	-	-전반적으로 송파구와 유사한 사회·경제적 환경 특성을 보임
	관악구	186,000,000	-인구·세대 밀도 및 자녀양육기 비율이 높음

(3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불량주택 다수 분포: 전반적인 주거환경 열악 -초등학교 과밀 -시설학원 비율,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액, 자치구 내 학생들의 학습성취도 등이 서울시내에서도 낮은 편: 전반적인 교육환경 열악 -서울시내 자치구 가운데 학생 1인당 교육비 최저수준
---------	--

※ 2010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49.3%

14,350,985,070원이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각 급 학교에 교부되어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에 쓰이게 된다. 협력사업 예산이 없는 자치구에 소제한 학교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을 통해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하게 된다.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의 공간적 분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사회적 특성과 함의를 갖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및 교육의 평등 및 접근성 문제와 관련된 주거환경 및 공간·사회적 특성을 <표 2>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자치구별 공간·사회적 특성 및 교육여건 관련 내용은 선행연구(강세진 등, 2008; 이규환·서승제, 2009; 서승환, 2005; 진영남·손재영, 2005; 윤형호·강민정, 2008)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서울특별시가 갖는 도시공간의 특성에 관해 이루어진 것들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에서의 원어민 보조교사 분포와 관련된 교육불평등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나 맥락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서울특별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의 불평등이 갖는 사회공간적 의미

앞 절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 예산 및 사회경제적, 주거환경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

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보여주는 공간적 특성이 어떠한 공간적·사회적 의미를 갖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이른바 ‘교육의 강남 집중현상’이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해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른바 ‘강남8학군’에 속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를 통틀어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두 자치구의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 예산 역시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다.⁶⁾ 이 두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도 80%에 육박하여, 서울시내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이 같은 특성은 ‘단히고 차별화된’ 교육공간으로서의 강남구가 갖는 공간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손준중(2004)에 따르면 교육공간으로서의 강남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경비를 부담하여 주택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강남의 주거비용은 강남구를 특권적 교육공간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강남은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배타적으로 ‘빛장처진(gated)’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높은 주택가격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공간의 분리와 불평등을 불러일으키고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강남학교군은 교육소비와 관련하여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결과 강남의 학원가로 학생들이 몰리고 집중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드러난다. ‘강남8학군’이라는 용어는 1977년 강남구가 8학군으로 편성된 이래 1980년대 들어 서울의 4대문 안에 몰려 있던 이른바 명문 고등학교의 강남 이전을 추진했고, 그 결과 명문 고등학교가 입지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강남8학군’이라는 강남의 신흥 명문고가 밀집된 지역을 지칭하는 말이 등장했다(안창모, 2010).⁷⁾ 이 같은 경향은 강남의 교육공간적 성격을 형성

6) 특히 강남구의 경우 자치단체 지원 예산(4,193,765,650원)의 규모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 액수에 필적(4,275,000,000원)하는 수준이다.

7) 안창모(2010)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울시 8학군 중에서도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오늘날에도 강남구는 질 좋은 교육시설 및 서비스의 공급에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 다시 말하면 교육소비와 관련하여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의 공간적 분포라는 문제에서도 이 같은 강남 집중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사실⁸⁾은, 강남을 축으로 하는 교육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을 분명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강남지역 거주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 학교에서 외국어 사용 환경을 경험하거나 만족도 높은 영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화될 정도로 높다는 사실은, 서울특별시라는 도시공간 내부에서 양질의 영어교육 기회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공간적 불평등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결과적으로 교육 전반에 걸친 공간적 불평등 문제를 야기·심화시키고, 나아가 특정 자치구나 지역이 차별화된 특권적 공간으로서의 속성을 유발·강화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자치구별 재원 마련이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된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강남구와 서초구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예산액이 압도적으로 높다.⁹⁾ 이들 두 자치구에 이어 세 번째

특히 강남구에 이 같은 명문 학교가 집중해 있다. 즉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강남구는 ‘강남8학군’ 중에서도 특히 양질의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게 집중되어 있는 지역(자치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8) ‘강남 8학군’의 또다른 관할 자치구인 서초구는 본 연구에서는 강남구에 비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이 두드러질 정도로 높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서초구의 배치율 역시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안창모(2010)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8학군의 교육집중 현상은 특히 강남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강남구의 경우 높은 자녀양육기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서초구의 경우에는 주거 외용도 비율이 높으며, 이 같은 사실은 서초구에 비해서도 강남구가 집중적인 교육 지원 및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 9) 자치단체 예산이 지원되는 17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액수가 많은 강남구의 예

로 높은 자치구인 구로구의 경우, 인접 자치구들인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등과 비교했을 때 재정자립도라든가 주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지역(강세진 등, 2008)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치구들에 비해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중’ 이하의 군집에 해당하는 자치구들의 경우,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치단체 예산이 확보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세 자치구에 비해 크게 낮으며, 아울러 이들 중 대부분의 자치구들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평균치를 현저히 밑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자치구 예산 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을 통해서도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충할 수 있으며 또한 최상위 군집에 해당하는 4개 자치구 가운데 하나인 성동구도 자치단체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절대시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상술한 자료 및 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자치단체 예산 및 이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재정자립도)가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 및 이를 통한 영어교육 기회의 공간적 평등 문제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준다는 논의를 도출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문제는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양호한 접근성이 일부 재정상태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뛰어나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일부 자치구에 한정되는 문제점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관악구의 경우 학생 수도 적지 않을 뿐더러 초등학교 과밀현상을 보이는 등 교육 관련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

산은(4,193,765,650원), 이들 자치구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용산구(85,200,000원)의 50배에 육박한다. 또한 이를 학생 1인당 예산으로 변환해 보더라도, 강남구(67,636원)는 용산구(3,706원)의 18배를 상회한다.

- 10) 더욱이 <표 2>와 <표 3>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특히 몇몇 자치단체의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 관련 예산은 자치구의 규모 및 학교 수·학생 수를 고려하면 서울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의 비중을 크게 웃도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같은 지자체의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 관련 예산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상태가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 및 이와 관련된 교육 기회의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관악구에는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자치구들과 비교했을 때 그 액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은 서울시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관악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교육적 낙후나 소외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종합하면 이러한 문제로 인해 도시 내에서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교육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교육 기회 불평등 현상이 유발·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치단체 및 그에 소속된 각 급 학교의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 정책 및 의지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된 교육불평등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단적인 사례가 송파구이다. 송파구는 강남구, 서초구와 함께 이른바 ‘강남3구’로 분류되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역에 해당하며,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 역시 건실하다. 더욱이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송파구는 학교 수 및 학생 수도 서울시내에서 수위에 해당하는 자치구이다. 이러한 사실은 송파구가 수준 높은 영어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에 노력할 필요성이 높으며 그에 요구되는 충분한 자원 역시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의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에 해당하며,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예산 역시 확보는 되어 있으나 그 액수는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송파구의 학교 수, 학생 수 및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이 같은 수치는 상대적으로 더욱 낮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송파구의 경우 충실한 재정 및 높은 교육투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그만큼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일부 자치구들의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5,000명 이상, 중·고등학교는 7,000명을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은 물론 이러한 자치구들 가운데 자치단체 예산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수치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이라는 문제가 자치단체 및 그에 소속된 각 급 학교의 노력 및 의지와도 어느 정도는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반면 구로구의 경우 재정자립도도 서울시 자치구 평균을 밑돌 뿐더러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중간 이하인 금천구, 관악구 등과 비교했을 때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주거환경 등에서 별 다른 차이가 없는 지역(강세진 등, 2008)임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예산은 이들 지역에 비해 훨씬 높게 확보되어 있고,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 역시 서울시내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자치단체의 노력이나 의지가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된 교육불평등 문제의 심화 또는 해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물론 본 연구는 2010년 4월 기준의 자료에 토대하여 이루어졌고 원어민 보조교사는 하반기에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이 남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급 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이들 자치구들이 1학기가 아닌 2학기에 충분한 수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보하여 그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학교제도가 3월부터 학기를 시작하는데다 원어민 보조교사 제도는 영어 교과의 특정 단위 지도가 아닌 일반적인 영어 사용능력 증진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원어민 보조교사는 2학기가 시작되는 8, 9월이 아니라 3, 4월에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어야 한다. 설령 이들 자치구들이 2학기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충분히 확보했다 하더라도 1학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원어민 보조교사에 의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며, 이렇게 되면 1학기에 이미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보하여 그에 의한 교육을 실시해온 학교 및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인 기회의 불평등이 유발 되는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하여 사립초등학교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할 수 있

다. 성북구의 경우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성은 중간 정도이지만,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의 경우 다른 자치구, 심지어 강남구, 서초구 등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접근성을 가진다. 이는 성북구의 사립 초등학교 분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결과 성북구는 사립 초등학교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자치구이며,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우수한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반면 공립학교에 비해 월등한 교육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부모의 구성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등 중·상류층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들 학부모는 사립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신뢰도, 시설·설비와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사립 초등학교를 선택하게 된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구연식, 2007). 더욱이 본 연구자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립 초등학교는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을 포함한 학교 운영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학교 재단 자체에서 마련하며, 이는 교육청 예산 및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부분이 큰 국·공립 초등학교 및 국·공·사립 중등학교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이 같은 측면은 원어민 보조교사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특히 성북구의 사립 초등학교들은 6개교 중 5개교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¹¹⁾되어 있었으며, 1개교에 1명 또는 2명 정도의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된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통상 6~7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 배치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¹²⁾ 이 같

11) 서울시내 사립 초등학교는 17개 자치구에 총 40개교가 소재하고 있는데 이 중 8개교가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된 사립 초등학교는 총 24개교이며 이 중에서도 5개교가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다. 즉, 성북구는 서울시내에서 특히 사립 초등학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2)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 원어민 보조교사는 교육청이나 자치단체 협력사업을 통해서가 아닌, 학교 자체 예산으로 채용한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다수 채용되어 있는 사립 초등학교가 다수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정 자치구의 주목할 정

은 사실은 성북구내 일부 부유층 거주지역을 따라 들어선 사립 초등학교들의 높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이 특히 성북구내 초등학교에서의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사립초등학교는 앞서 언급한 특성으로 인해 이른바 ‘귀족학교’로 인식(《한국일보》, 2010.10.8; 《프레시안》, 2010.10.20; 《매일경제》, 2008.3.1)되기도 하는데다 학군을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국·공립 초등학교 및 국·공·사립 중·고등학교(일부 특목고 제외)¹³⁾와는 달리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에 의해 학생을 선발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같은 성북구의 특성은 자치구 스케일로 초점을 좁힌다면 자치구내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불평등 및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자본의 소유와 관련된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그림 1>~<그림 3>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에서의 원어민 1인당 학생 수가 주목할 정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고등학교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 비해 학교 규모가 크고 학생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채 ‘학교당 1명’ 형태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한 데서 기인하는 문제로 판단된다.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수준 높은 영어교육이 보다 현실성 있게 실현되려면, 단지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1명(이상) 배치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 급별 특성과 학교의 현황을 고려한 보다 현실성 있는 채용·배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관악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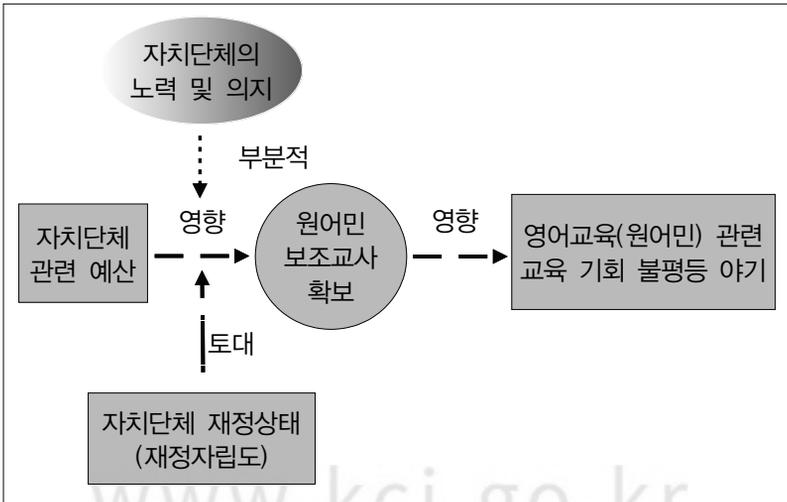
도로 높은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영어교육 기회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뛰어난 자본력을 앞세운 일부 사립학교의 공간적 분포가 교육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과도 관련된다는 것을 함의한다고 하겠다.

- 13) 특목고의 경우 애초 일반적인 학교교육과 차별화되는 ‘특수목적’하에 설립되었지만,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초등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립 초등학교를 부유층 자제 등이 주로 다니는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초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학교로 간주하였음을 밝혀 둔다.

자치구 내에서도 학교 급별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극단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교육청 및 지자체를 통한 원어민 수급이 학교 급별 특성이나 균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학교 급별로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일 없이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조치가 요청된다.

종합하면, 도시 내부에서의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공간적 불평등은 원어민 교사 확보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인 예산 문제와 상당 부분 관련성을 가진다. 즉,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을 위한 자치단체 예산(교육청 협력사업 등) 및 그 기반이 되는 자치단체 재정상태(재정자립도)는 도시 내부에서의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남 등 일부 자치구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고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그림 4>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와 관련된 자치단체의 영향과 역할



지원이 저조한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접근성을 보이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여기에 더하여 자치단체의 노력 및 의지와 관련된 부분도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메커니즘(<그림 4>)으로 인해 서울특별시라는 도시공간 내부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 즉 원어민을 통한 영어교육 기회에 공간적인 불평등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영어교육 기회를 교육 기회의 공간적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울시내, 즉 도시공간에서의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은 공간적으로 주목할 만큼 불평등하며, 이러한 문제는 자치구별 재정상태 및 이에 토대한 원어민 관련 예산의 공간적 차별성에 기인하는 부분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치단체의 노력이나 의지와 관련된 부분 역시 이러한 문제의 완화 또는 심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도시공간 내부에서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영어교육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도시 내 지역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시 스케일에서의 노력이 요청된다. 예컨대 자치구가 아닌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교육청 예산이 충분한 규모까지 확보¹⁴⁾되고 이것이 자치구의 재정상태나 교육여건 등을 고

1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표 2> 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은 일개 자치구인 강남구 예산과 비교했을 때 근소하게 높은 수준이다. 강남구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액수는 서울특별시 전체 예산액수가 충분치 못하다는

려하여 집행 — 예컨대, 자치단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교부하는 등 — 된다면, 본 연구에서 확인한 영어교육, 나아가 교육 기회의 도시공간 내부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해소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⁵⁾

둘째,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나 의지와 관련된 부분도 이 같은 문제의 해소 또는 심화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도시 차원에서는 물론 도시 내의 여러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력 역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치단체의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그 같은 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육의 공간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교육적 환경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교육 기회가 더욱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원어민 보조교사를 최대한 적절한 시기에 확보·배치하기 위한 노력 역시 요청된다.

셋째, 초등학교의 경우 사립 초등학교의 원어민 수 및 접근성이 공립 초등학교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또 다른 영어교육과 관련된 교육 기회의 또 다른 공간적 불평등을 야기함은 물론 중구적으로 공교육의 기능 약화 문제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립학교에서도 사립 초등학교와 심할 정도로 차

사실을 시사한다고도 할 수 있다.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배치가 기본적으로 관련 예산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예산은 2010년 현재 액수보다도 더욱 큰 규모로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15) 하지만 실제 교육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와는 상이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측면도 관찰된다. 서울시의회가 시 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2012년 영어 원어민 인건비 예산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교사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 전체 원어민 교사 1245명의 57%가 2012년부터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조선일보》, 2011. 12.7일자 기사). 이 경우 본 논문에서 언급한 서울시내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된 공간적 불평등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나아가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된 교육 기회 및 교육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별화되지 않는 수준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적,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 급별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제언이 원어민 관련 교육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다면, 도시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보다 수준 높고 만족도 높은 영어교육을 받을 기회를 공간적으로 보다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 교육평등은 물론, 중국적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도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인 ‘도시에 대한 권리’(강현수, 2009; 김기남, 2011)가 도시공간 내부에서 보다 평등하게 실현되기 위한 하나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A Study on the Spatial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in an Urban Area: Focusing on the Opportunity to Learn English
by School Native English Instructors

Lee, Dong-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quality of education related to school native English instructors in an urban space. Natural breaks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were used as the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show that financial statuses and investments for employing native English instructors of each districts influence the accessibility on them significantly. Also, efforts and attempts of local governments affect the accessibility in a degree. Such results suggest the inequal accessibility on native English instructors, and education in urban scal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proposes that effective solution for the equal accessibility should be attempted and executed in order to relieve it urban scale: this is expected to be a efficacious alternative plan for the equal opportunity for learning English, and ultimately, the equality of education as *the right to the city*.

Keywords: equality of education, educational opportunity, school native English instructor, urban space

참고문헌

- 강세진·김창석·남 진. 2008. 「블록별 주거환경지표의 군집분석을 통한 서울시 주거 자유형 및 유형별 특성분석」. 《국토계획》, 43(3), 129~143쪽.
- 강현수. 2009.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공간과 사회》, 통권 제32호, 41~88쪽.
- 구연식. 2007. 「사립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선택 배경 및 만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남. 2011. 「경쟁주의와 학력격차가 불러온 도시 간 명문고 경쟁, 그리고 학생의 권리」. 《공간과 사회》, 통권 제35호, 70~104쪽.
- 김 인·박수진 편저. 2006. 《도시해석》. 푸른길.
- 서승환. 2005.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환경의 질에 관한 비교분석」. 《서울도시연구》, 6(2), 21~38쪽.
- 손준중. 1995. 「교육 기회의 평등에 대한 고찰: J. Rawls와 R. Nozick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7, 161~178쪽.
- _____. 2004. 「교육공간으로서 강남(江南) 읽기-교육정책에 주는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14(3), 107~131쪽.
- 송승민. 2005. 「EFL 환경과 ESL 환경에서 영어조기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 유형 분석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4), 387~412쪽.
- 송유선·이은숙. 1993. 「교육환경의 사회지리학적 연구-서울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21, 1~17쪽.
- 안창모. 2010. 「강남개발과 강북의 탄생과정 고찰」. 《서울학연구》, 41, 63~97쪽.
- 우종현. 2002. 「도시공공서비스 측면에서의 대구시 고등학교 분포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3), 314~325쪽.
- 윤형호·강민정. 2008. 「서울시 자치구별 상위학교 진학률에 대한 거주지 효과 분석」. 《서울도시연구》, 9(4), 87~106쪽.
- 이규환·서승제. 2009. 「서울시 자치구간 지역 격차에 관한 연구: 강남 3구와 강북 3구의 비교」. 《한국공공관리학회보》, 23(4), 357~381쪽.
- 이혜진·한유경. 2006. 「서울시 공립 초·중학교 교육비의 공평성 분석」. 《교육재정정책연구》, 15(2), 67~94쪽.
- 주경식·김경숙. 2004. 「서울시 학원의 공간적 분포 패턴 변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3), 363~378쪽.
- 진영남·손재영. 2005. 「교육환경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 아파트시장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13(3), 125~148쪽.
- 최셋별. 2003. 「한국 사회에서 영어실력에 대한 문화자본론적 고찰: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실태와 영어능력자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

- 학 연구논총》, 11, 5~21쪽.
- 최청일·박선하. 1999. 「대도시 공동화 현상에 따른 도심학교 통·폐합의 비용-수익 분석」. 《지방교육경영》, 4, 225~290쪽.
- 최희경. 2008. 「원어민교사 활용에 대한 초등영어교육 현장의 목소리: 현황과 개선 방안 탐구」. 《한국의국어교육학회지》, 15(1), 333~362쪽.
- 하운봉. 2007.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성과와 과제: 경기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14(1), 123~146쪽.
- 홍창남·김훈호·이쌍철·정성수. 2009. 「중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정책의 효과성 분석」. 《교육행정연구》, 27(4), 57~86쪽.
- 水岡不二雄. 2002. 「經濟學が忘れてしまった空間」. 水岡不二雄 編 『經濟·社會地理學』. 東京: 有斐閣.
- Coleman, J. S. 1990. *Equality and Achievement in Education*. Boulder, CO: Westview Press, Inc.
- Deutsch, M. 1975. "Equity, Equality, and Need: What Determines Which Value Will Be Used as the Basis of Distributive Justice?." *Journal of Social Issues*, 31(3), 137~149.
- Heartshorn, T. A., B. D. Dent, and J. I. Heck. 1992. *Interpreting the City: An Urban Geography*, Second Edition.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Inc.
- Lynch, K., and J. Baker. 2005. "Equality in Education: An Equality of Condition Perspective."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3(2), 131~164.
- Talen, E., Anselin, L. 1998. "Assessing Spatial Equity: An Evaluation of Measures of Accessibility to Public Playground." *Environment and Planning A*, 30, 595~613.
- Talen, E. 2001. "School, Community, and Spatial Equity: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Access to Elementary Schools in West Virginia."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1(3), 465~486.
- Zhang, X., and K. Ravi. 2005. "Spatial Inequality in Education and Health Care in China." *China Economic Review*, 16(2), 189~204.

신문기사

- 《경북일보》. 2009년 4월 8일자. "포항 초중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열풍".
- 《내일신문》. 2011년 12월 1일자. "기초학력미달 줄인 학교들 비법은?".
- 《뉴시스》. 2011년 2월 8일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80명 채용".
- 《대전일보》. 2009년 1월 21일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효과 만점'".
- 《매일경제》. 2008년 3월 1일자. "원어민 교사들 조연... '학교 영어교육 이렇게 바

뛰라”.

_____. 2011년 12월 1일자. “대전여고, 학생들 마인드 변화가 비결”.

《조선일보》. 2011년 12월 7일자. “서울 초중고 원어민 교사 사라지려나”.

《프레시안》. 2010년 10월 20일자. “자녀를 ‘귀족학교’에 쫓 보내면... 학비만 1억 7000만 원”.

《한국일보》. 2010년 10월 8일자. “고소득층 ‘그들만의 인맥쌓기’ 場 인식”.

웹페이지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웹사이트(<http://www.schoolinfo.go.kr>).

정보공개시스템 웹사이트(<http://www.open.go.kr>).